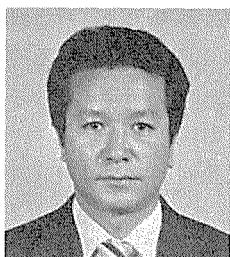


Camera 一体型 VTR의 現況과 展望



李 文 成

三星電子(株) Video 事業本部 研究室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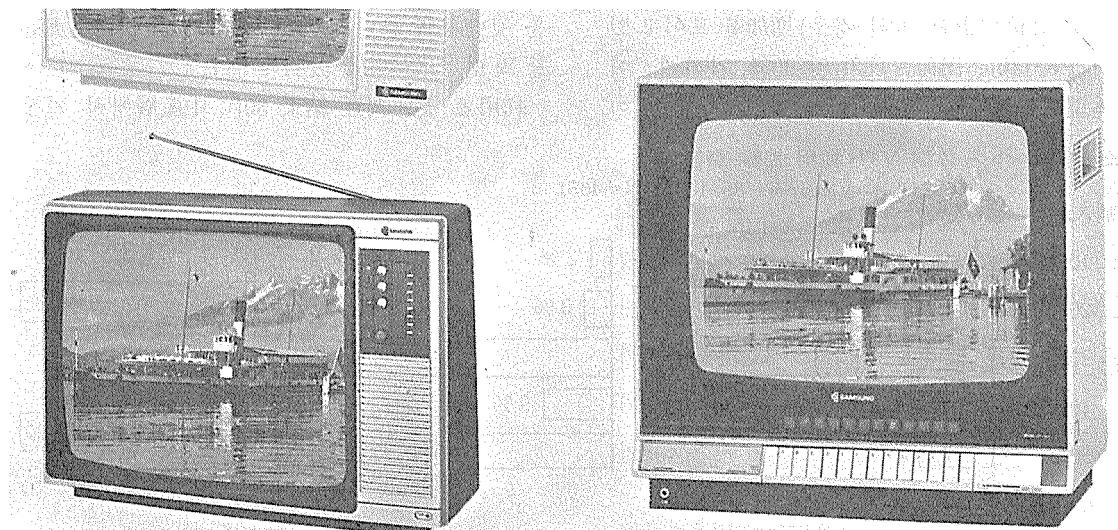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VTR은 단순히
TV 프로그램의 녹화·재생이라는
이용방법이 주류였으나 현재는
User 스스로가 Camera로 촬영·편집하고
또 영상 만들기를 즐긴다는 경향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수요층의 이러한
Needs의 변화에 따라 Camera 일체형이
최근에 와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VTR의 出現은 大衆文化를 새롭게 創造하였고 生活이 풍요로와짐에 따라 VTR의 効用性은 점차 增大되어 가고 있다. 특히 VTR은 TV 프로그램의 선택 시청뿐만 아니라 名画·重要記錄 등의 再視聽이 가능해졌고, 現代에 와서는 映像을 직접 製作하는 등 大衆 文化生活의 매체로서 그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종래에는 一般大衆이 직접 映像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주로 專門家들에 의해 製作·編輯되었으나 非專門家들도 사용이 容易하도록 Camera 및 VTR을 한 몸체로 하고 또 휴대가 간편하도록 한 Camera 一体型 VTR의 出現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家電業界의 主役인 VTR은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低価格·多機能으로 性能이 대폭 向上된 普及機種과 핸디 및 어깨 Type의 Camera 一体型 VTR이 好調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高画質化를 꾀한 HQ (High Quality) 方式 및 Hi-Band 方式이 超廉価型 普及機種에 채용되고 있고, 또 価格도 인하되어 消費者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初期에 普及機種으로서 출발한 Hi-Fi Type도 低価格화가 진행되어 적당한 価格이 나옴으로서 짚은 층을 중심으로 需要層이 拡大되고 있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특히 小型·軽量을 무기로 하는 Camera 一体型 VTR의 出現은 더욱 消費者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85년은 8mm와 Full Cassette에서 거의 동시에 출발한 販賣戰이지만 여름에는 Auto Focus機能을 채용한 것이, 가을에는 錄画専用이면서 1kg이란 超小型 軽量의 8mm Video가 등장하여 市場의 인기를 크게 높여 놓았다. 또한 VHS Compact를 사용하여 錄画·再生이 가능한 最輕量 Type로서 Video Movie가 등장하여 '86年 2~3月에는 市場出荷分의 過半数를 차지



가전업계의 주역인 VTR은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

하고 있다. 7月경에는 이보다 훨씬 가벼운(0.7kg 予想) 錄画専用機도 이 方式으로 市場에 出荷될 전망으로 있어 各 規格間에 市場確保를 위한 격렬한 競争이 예상되고 있다.

今年의 VTR 需要展望으로는 日本의 경우 据置型이 400万~410万台, Camera 一体型이 60万~70万台 정도로 展望되고 있으나 一体型은 약간 增加될 것으로 推測된다. 이렇게 되면 今年 中半期에는 VHS方式 VTR의 全世界 普及台数가 1億台를 돌파하게 된다. (VTR의 누적 출하대수는 '85년 말로 전세계에 1억대를 돌파하였음)

이러한 VTR의 高成長 속에서 User가 원하는 製品의 機能은 현저하게 변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VTR은 단순히 TV 프로그램의 錄画·再生이라는 利用方法이主流였으나 현재는 User 스스로가 Camera로 摄影·編輯하고 또 映像 만들기를 즐긴다는 傾向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需要層의 이러한 Needs의 變化에 따라 Camera 一体型이 최근에 와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Camera 一体型 VTR이야말로 Pro Type의 性能과 特性을 충분히 發揮하기 때문이다.

User의 움직임에 따라 各 業체에서는 多樣한 機種의 Camera 一体型 Set를 市場에 出荷中이거나 計劃中에 있다. 현재 市場에 出荷中인

Camera 一体型 VTR로서는 8mm 方式에서 SONY의 Handy CAM (CCD-M8 : 錄画専用), C-CD-V8 (録画·再生이 可能), 그리고 松下의 OEM에 의한 KODAVISION(美 Eastman Kodak社), Camera Maker인 Canon社의 CANO-VISION 등이 있으며 VHS 1/2" 機種으로는 Full Cassette Type으로서 松下, 日立 등에서, β진영에서는 SONY의 Beta Movie 등이 있으며 이는 Set의 무게나 Size가 8mm나 VHS-C Type에 비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아직도 美國市場에서는 Camera 一体型으로서 꽤 인기를 얻고 있다. 1/2"VHS 方式의 市場占有率을 겨냥한 VICTOR社의 GR-C 7 (Video Movie)는 世界最小·最軽量으로 (1.3kg) 현재 供給이 需要를 따르지 못할 정도이다.

GR-C 7이 이렇게 인기를 얻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小型·軽量인데다 既存 VHS 方式을 그대로 이용한 점, 그리고 高画質 HQ 方式으로써 錄画·再生時間이 長時間 Mode時 1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User는 子女의 成長이나 家庭의 生活을 기록 記錄, 또는 주요 行事의 内容을 Camera 一体型으로 摄影하여 映像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生活 가운데 VTR의 Communication Media로서 位置가 확실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Camera 一体型이 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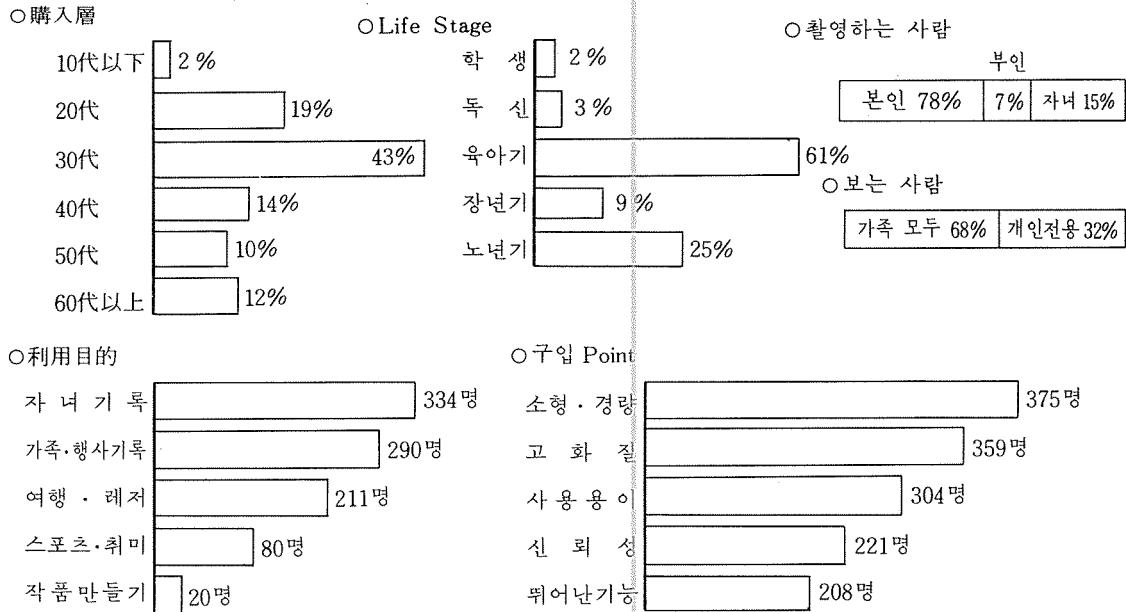
年対比 3倍以上(日本의 경우)増加를 보이고 있으며 Portable 出荷台数의 約 90% 가까이 이一体型 Camera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를 뒷받침해 준다. Camera 一体型의 利用実態를 보면 이는 더욱 分明해진다.

利用者 実態調査 結果 30代 中産層에서 가장

도표 Camera 一体型 VTR 利用 実態 調査

(日本 Victor 社. '85. 10/11. N=465)



많이 購入하고 있으며 育児에 많이 利用됨을 알 수 있다. 特記할 것은 摄影하는 사람은 世帶主가 80%인데 보는 사람은 家族 모두가 보는 것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제 Camera 一体型 VTR은 일부 特殊層만의 것이 아니라 Video의普及과 더불어 스스로 映像 만들기를 즐기는 등 利用方法이 서서히 大衆化·表面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mera 一体型 VTR의 需要 增加와 더불어 関聯 部門의 需要도 創出되고 있다. 주변 악세사리 및 編輯用機器의 增加가 수반되었으며, V-TTR의 高画質化와 音質의 개선에 따른 接續 Plug, Cord류의 高級化 등에 의해 每年 20~30% 정도의 成長을 계속하고 있다. Video 関聯 악세사리 중 金額의 構成比가 가장 큰 것은 V-HS-Movie나 8mm Camera 一体型 Video 등 Movie(Camcoder)의 專用 악세사리이다. 專用 Case와 Battery Pack, 充電 Adaptor 등이 상당한 規模로 出荷되고 있어 業体側에서는 Set

賣出과 더불어 악세사리 賣出도 올리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摄影用 악세사리인 삼각대, 라이트 등도 一体型의 販賣를 계기로 需要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Camera 一体型 VTR로서 어떤 機種이 더 인기를 얻을까 하는데는 아직도 많은 의견이 있다. 중요한 것은 VHS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VICTOR가 GR-C 7을 出荷하고부터는 初期의 8mm Camera 一体型 市場의 양상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SONY의 경우 月產 15万台이던 8mm 一体型이 GR-C 7 出市 후 그 生產量이 半減한 것은 그 대표적例이다. 앞으로 당분간은 8mm와 VHS-C는 VTR 初期의 VHS와 Beta의 각축전을 방불케 할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8mm Video는 Video 市場을 보다 체계적으로 成長시키기 위해 各社가 모여 規格을 制定·統一한 것으로 8mm Video 規格統一에는 1/2" VHS 및 Beta 때 발생했던 互換性이 없는 規格

의 混亂을 피하기 위해 世界 127個社가 모였다. 근본적으로 錄画·再生의 기본적인 方式은 Analogue 技術을 이용한 점에서 1/2"와 변함이 없다. 두 方式 사이의 가장 큰 차이라면 첫째, 사용되는 Tape의 材質이 다른 것이다. Tape에 記錄된 情報量은 記錄·再生方式이 같은 경우 Tape의 面積에 비례한다. 같은 材質의 Tape라면 8mm는 1/2"의 VHS보다 기록면적이 적어 기록용량이 적어지므로 이러한 핸디캡을 없애기 위해 VHS의 純화철보다 記錄密度가 높은 Metal Tape를 사용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8mm는 VTR用뿐만 아니라 Audio Tape나 Computer의 外部 記憶裝置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規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 規格에 의하여 8mm를 製品化하여 販賣하고 있는 業体는 日本의 경우 SONY, SANYO電氣, 그리고 Camera 業体인 Canon 등이다. VHS의 純영에서는 松下, 東芝が 美國 業体에 약간의 OEM供給을 하고 있을 뿐이다. VHS 純영의 주요 業体는 8mm의 開發이 늦지는 않았으나 自社 Brand에 의한 市場 投入을 주저하고 있다. 1/2"VHS의 既存市場 때문만 아니라 VHS-C(GR-C 7)의 發表가 있었고, 특히 小型·輕量의 限界가 있다고 생각한 1/2" Type이 GR-C 7에서 8mm보다 더 小型·輕量을 実現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8mm의 小型·輕量에 대한 Merit 効力を 잊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SONY를 중심으로 한 8mm 純영과 VHS-C 純영간의 第2次 Video戰爭이 시작된 것이다.

제 1차 Video戰爭은 SONY가 Beta를 먼저 내놓은 후에 VICTOR가 VHS規格으로 대항하였고 「經營의 神」으로 알려진 松下의 마쓰시타고노스케의 결단으로 松下가 VHS를 채택하므로써 VHS가 世界의 規格이 되다시피 하였다. 2차 Video전쟁은前述한 世界統一規格인 8mm

를 SONY가 먼저 發表한 후 VHS純영에서는 VHS互換性을 무기로 VICTOR가 정면으로 規格 경쟁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Camera 一体型 市場에서(現在 美國은 1/2"Full Cassette Type의 Camera 一体型 VTR이 더 인기를 누리고 있음) 8mm Video 方式이 回復勢를 보임에 따라 올해는 一体型 各 方式의 方向을 注視하면서 今年에서來年 사이에 8mm Video의 販賣에 合勢할 業体도 많다. 중요한 것은 향후 8mm와 VHS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市場性을 갖는가에 있다.

GR-C 7의 出現으로 VHS-C에 參여한 業体는 日本 VICTOR를 비롯하여 松下, TOSHIBA, SHARP, HITACHI, 三菱을 포함한 總 6個社로서 향후 SONY를 중심으로 한 8mm 純영과 VHS 純영의 Camera 一体型 VTR 販賣戰은 더욱 치열해질 展望이다. 현재로서는 GR-C 9 및 이에 대응할 8mm Set의 出現을 기대하고 관망하는 User도 없지는 않으나 당분간은 Soft가 풍부한 VHS 純영의 Video Movie가 유리하리라 予想된다. 그러나 時間的 制約(最大 錄画時間: 1時間) 등을 고려한다면 長時間 Mode에서는 8mm Video가 더 유리하고 또 8mm의 큰 매력인 PCM Audio 方式을 쓴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8mm Video는 Soft의 問題를 해결한다면 결국 次世代 VTR로서 8mm Camera 一体型의 시대가 올 것으로 展望하는 意見들이 많다. 그러나 그 時期와 市場占有率 정도는 현재 予測하기 어렵다.

이제 Camera 一体型으로 市販되는 VHS-C와 8mm兩 純영간의 진군을 바라보면서 消費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人氣 商品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兩大 純영간의 販賣戰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한결 더해져간다.